반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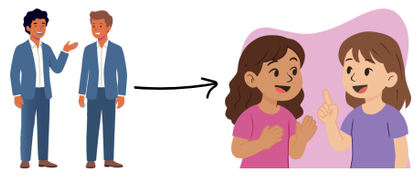
1.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.



casual Korean



polite Korean



speak casually /
drop the honorifics



child



junior



person of the
same age



(one's own)
sister/brother

2. 다음 예문을 읽어 보세요.

처음 만난 사람한테 **반말**을 하면 안 돼요.

우리 **동갑**이니까 **말을 놓을까요**?

어른들은 어린 **아이**한테 보통 반말로 말해요.

대학교를 졸업을 한 후에도 가끔 **후배**들을 만났어요.

가: 이 사람은 누구예요? 나: 우리 **친언니**예요.

3. 반말을 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.

(1st person) 저 → **나**　제가 → **내가**　제/저의 N → **내/나의 N**
저희 → **우리**
(2nd person) **너, 네가, 네/너의 N**
네 → **응 / 어**　아니요 → **아니**
(Addressing Someone): (이름에 받침이 있을 때) 정민**아**, (없을 때)민지**야**
(Referring to Someone): (이름에 받침이 있을 때) 정민**이**

- -이에요/예요 → 이야/야 (이거 커피예요. → 이거 커피야)
- 아/어요 → -아/어 (더워요 → 더워)
- -았/었어요 → 았/었어 (더웠어요 → 더웠어)
- -을 거예요 → -을 거야 (갈 거예요 → 갈 거야)
- -으세요 → -아/어 (가세요 → 가)
- -지 마세요. → -지 마 (가지 마세요 → 가지 마)

4. 다음 문장을 반말로 바꿔 쓰세요.

1) 미국 사람이에요?

2) 네,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.

3)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.

4) 저는 매일 샤워해요.

5) 라면이 너무 매워요.

6) 밥 먹었어요?

7) 아니요, 아직 안 먹었어요.

8) 이건 제 책이 아니에요. 제 친구의 책이에요.

9) 저희는 어제 도서관에 있었어요.

10) 저희 가족은 가을에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.

11) 시험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.

12) 물 좀 주세요.

13) 웃으세요.

14) 울지 마세요.

15) 저 좀 도와주세요.

16) 수미 씨, 크게 말해 주세요.

17) 저도 그 태국 음식을 먹어 봤어요.

18) 이 신발이 예쁜데 한번 신어 보세요.

19)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. 잊어버렸어요?

20) 지금 제 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

21)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.

22)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하고 식사하기로 했어요.

23) 민수 씨, 내일 뭐 해요?

24) 내일은 게임하면서 푹 쉴래요.

25) 창문 좀 닫아 주세요. 바람이 들어오잖아요.

26) 노래를 정말 잘하네요. 저도 노래를 잘 하고 싶어요.

27) 날씨가 진짜 춥지요?

28) 저는 먼저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

29)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

5. 다음 대화문을 반말로 바꿔 보세요.

가: 은정 씨, 주말에 뭐 해요?

나: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. 왜요?

가: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? 근처에 새로운 식당이 생겼잖아요.

나: 아, 맞아요! 저도 거기에 가 보고 싶었어요. 같이 가요.

가: 그럼 내일 12시에 그 식당 앞에서 만날래요?

나: 좋아요. 혹시 그 식당 주소를 저한테 보내 줄 수 있어요?

가: 네, 보내 줄게요. 그럼 내일 봐요.

나: 네, 내일 만나요.

가: 민수 씨, 지금 바빠요?

나: 네, 저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

가: 민수 씨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네요. 한국어가 어렵지 않아요?

나: 네, 너무 어려워요. 숙제를 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서 걱정이에요.

가: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도와줄까요?

나: 정말요? 네, 저 좀 도와주세요. 제가 전화해도 돼요?

가: 그럼요, 편할 때 전화해 주세요.

나: 감사합니다. 10분 후에 전화드릴게요.

6. 다음 질문에 반말로 대답하세요.

1) 가: 어느 나라 사람이야?

나: _____.

2) 가: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?

나: _____.

3) 가: 어제 뭐 했어?

나: _____.

4) 가: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나 취미가 있어?

나: _____.

5) 가: 넌 왜 한국어를 배워?

나: _____.

6) 가: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?

나: _____.

Answer Key

1. 반말, 존댓말, 말을 놓다
   아이, 후배, 동갑, 친언니/오빠/누나/형

4. 1) 미국 사람이야?
   2) 응, 나 미국 사람이야.
   3) 오늘은 날씨가 좋아.
   4) 나는 매일 샤워해.
   5) 라면이 너무 매워.
   6) 밥 먹었어?
   7) 아니, 아직 안 먹었어.
   8) 이건 내 책이 아니야. 내 친구 책이야.
   9) 우리 어제 도서관에 있었어.
   10) 우리 가족은 가을에 같이 여행 갈 거야.
   11) 시험이 어렵지 않을 거야.
   12) 물 좀 줘.
   13) 웃어.
   14) 울지 마.
   15) 나 좀 도와줘.
   16) 수미야, 크게 말해 줘.
   17) 나도 그 태국 음식 먹어 봤어.
   18) 이 신발 예쁜데 한번 신어 봐.
   19) 아까 내가 말했잖아. 잊어버렸어?
   20) 지금 내 동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.
   21)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.
   22)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하고 식사하기로 했어.
   23) 민수야, 내일 뭐 해?
   24) 내일은 게임하면서 푹 쉴래.
   25) 창문 좀 닫아 줘. 바람 들어오잖아.
   26) 노래 정말 잘하네. 나도 노래 잘하고 싶어.
   27) 날씨 진짜 춥지?
   28) 나 먼저 갈게. 잘 있어.
   29) 잘 먹을게. 고마워.

5. 가: 은정아, 주말에 뭐 해?
나: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. 왜?
가: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? 근처에 새로운 식당 생겼잖아.
나: 아, 맞아! 나도 거기 가 보고 싶었어. 같이 가.
가: 그럼 내일 12시에 그 식당 앞에서 만날래?
나: 좋아. 혹시 그 식당 주소 나한테 보내 줄 수 있어?
가: 응, 보내 줄게. 그럼 내일 봐.
나: 응, 내일 만나.

가: 민수야, 지금 바빠?
나: 응, 나 지금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데.
가: 민수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네. 한국어 안 어려워?
나: 응, 너무 어려워. 숙제하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걱정이야.
가: 걱정하지 마. 내가 도와줄까?
나: 정말? 응, 나 좀 도와줘. 내가 전화해도 돼?
가: 그럼, 편할 때 전화해.
나: 고마워. 10분 후에 전화할게.

6. (example) 1) 나는 한국 사람이야. 2)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만두야.
   3) 어제 집에서 떡볶이를 만들었어. 4) 응, 나는 시간이 있을 때 노래 연습을 하고 있어.
   5) 다음에 한국에 여행을 가서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배워. 6) 새로 나온 드라마를 보고 싶어.